



보 도 자 료

다시, 대한민국!
새로운 국민의 시대

보도시점 2025. 6. 2.(월) 배포 2025. 6. 2.(월) 09:00

국립세종수목원, 누구나 장벽없이 누리는 ‘배리어프리 체험화단’ 운영

- 10월까지 국립세종수목원 감각정원서 -

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(이사장 심상택)은 국립세종수목원이 누구나 장벽 없이 누리는 배리어프리(barrier-free) 체험화단(7곳)을 오는 10월까지 운영한다고 밝혔다.

국립세종수목원 내 감각정원에서 운영되는 체험화단은 향기체험과 촉감 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. 우선 향기체험은 ▲로즈마리 ▲체리세이지 ▲블루세이지 ▲백리향으로 마련됐으며, 촉감체험에는 ▲은쭉 ▲램스이어 ▲우단동자꽃이 심어져 있다.

신창호 국립세종수목원장은 “장애인,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의 물리적 장애물을 없앤 배리어프리 화단에서 식물의 향기를 맡고 감촉을 느끼며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치유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”고 말했다.

담당 부서	국립세종수목원 서비스본부 전시원실	책임자	실 장	박원순 (044-251-0172)
		담당자	대 리	김로은 (044-251-0150)

대한민국
정책브리핑

더 아픈 환자에게 양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
가벼운 증상은 동네 병·의원으로





1. 국립세종수목원 감각정원에 조성된 체험화단 중 향기체험 화단에 로즈마리가 식재되어 있다.



2. 국립세종수목원을 방문한 휠체어 이용 관람객이 체험화단을 이용하고 있다.



3. 국립세종수목원을 찾은 어린이 관람객이 배리어프리 체험화단에서 향기 체험을 하고 있다.